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12. 17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佛, 성탄절 연휴 테러모의 일당 검거
 - 12.9 프랑스 경찰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학교·쇼핑몰·거리 등지에서 흉기 테러를 모의한 이슬람 극단주의자 2명(남, 23세)을 체포했으며, 이 중 1명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
 - * 同人들은 경찰에 의해 살해당할 장소까지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확인

미주

- 美 뉴욕市,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4배 이상 증가
 - 12.8 뉴욕경찰(NYPD)은 금년 1월~11월 발생 증오범죄는 총 494건으로 작년 동기 251건 대비 97%가 증가하였으며, 특히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는 128건 발생해 전년 동기 28건 대비 357%나 증가했다고 발표
 - * 「세이」 국장은 '증오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인과 유대인이다'라고 부연
- 美, 올해 자국 공항에서 압수한 총기 역대 최고
 - 12.14 美 교통보안청(TSA)은 올해 자국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압수된 총기는 총 5,700여 정('19년 4,400정, 1,300정↑)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* 11.20 애틀랜타 공항에서 탑승 예정객 소유 총기가 보안검색 중 오격발되어 승객들이 대피하고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
- 美, 아프간 오폭 관련자 징계 대신 희생자 가족 금전 보상
 - 12.14 美 국방부는 지난 8.29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발생한 무인기 오폭 사건(사망 10명)에 대해 "비극적인 실수"라고 인정하면서도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고 유족에게 금전 보상을 하기로 결정
 - * 美 국방장관은 지난달 「케네스 매킨지」 중부사령관과 「리처드 클락」 특수작전사령관이 제안한 권고("미군 요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")를 수용

아 · 태평양

- 인도네시아, 테러단체 소속 폭탄 전문가 무기징역 선고
 - 12.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동부법원은 '폭탄 교수'라는 별칭으로 악명을 떨친 테러단체 제마 이슬라미야(JI) 소속 폭탄 제조 전문가 「타우틱 불라가*」 (43세)에게 무기징역을 선고
 - * '04년 미니버스 테러(사망 6)·'05년 포소 시장 테러(사망 22)·'06년 포소 손전등 폭탄테러(사망 1)에 사용된 폭탄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
- 필리핀, 인권침해 논란 테러방지법 일부 조항 위헌 판결
 - 12.9 대법원은 지난해 7월 「로드리고 두테르테」 필리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테러방지법*의 대상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
 - * 영장 없이 테러용의자 24일간 구금 가능, 필요시 도청 권한 사법당국 부여 등

중 동

- UN, 이라크內 민간인 대상 테러공격 비난 결의안 채택
 - 12.9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이라크에서 민간인 대상으로 발생한 2건*의 테러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해당국을 비롯한 테러 피해국들의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
 - * 12.3 모술市에서 ISIS의 민간인 공격(사망 13), 12.7 바스라市에서 도심 폭탄 테러(사망 4)

아프리카

- 민주콩고-우간다, 민주군사동맹(ADF) 대상 대테러작전 전개
 - 12.11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는 콩고 북부 베니 지역에서 민주군사동맹(ADF)을 대상으로 대테러작전을 전개, 본부 기지를 파괴하고 테러범 34명을 포로로 붙잡았다고 발표
 - * 양국은 도로 건설·무기 수거·의료센터 건립 등 광범위한 지원활동도 공동으로 전개

레바논 주재 이라크 대사관 폭탄테러

- '81. 12. 15 이라크 시아파 武裝政派 '이슬람 다와黨'*은 레바논 주재 자국 대사관 대상 원정 자살 차량 폭탄테러를 자행, 171명의 사상자 (사망 61·부상 110명)를 초래하고 공관을 파괴
 - * '79년 이란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의 지원으로 이전보다 더욱 공세적인 對정부 폭력활동 전개
- 100여kg의 폭발물 적재 차량이 이용된 同 공격으로 이라크 大使 「압둘 라작 라프타」 (Abdul Razzak Lafta) 및 아랍문학권의 저명 文人 「니자르 카바니」 (Nizar Qabbani)의 妻 「발끼스 알-라위」 (Balqis al-Rawi) 등이 사망
 - * 「니자르 카바니」는 사건 충격으로 자국을 떠나 스위스·프랑스·영국 등을 전전
- 사건은 이라크 정부가 '이슬람 다와黨'이 前년에 자행한 「타리크 아지즈」 (Tariq Aziz) 부총리 암살미수에 대한 조치로 同 조직의 정신적 지도자 「무함마드 바키르 알-사드르」 (Muhammad Baqir al-Sadr) 처형 등 탄압 과정에서 발생
 - * 이란으로 도주한 조직 잔당들은 이란-이라크戰이 발발하자 이란의 對이라크戰 지원
- 한편, 일부 전문가들은 '83년 레바논에서 연쇄 발생한 '美대사관 폭탄 테러'(4.18) 및 '베이루트 다국적군 병영 폭탄테러'(10.23)에 수 개월 앞서 일어난 同 공격에 대해 세계 現代史 최초의 '자살폭탄테러'라고 평가

< 이슬람 다와黨(Hizb al-Da'wa al-Islamiyya) >

- (창 설) '57년 「무함마드 바키르 알-사드르」는 이라크 內 사회주의와 세속주의가 팽배하자 이슬람 가치 확산과 자국의 이슬람 神政국가로의 政體변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同 단체를 창설
 - * 지난 '05년 이라크 제헌의회 구성 선거를 위해 '이라크 이슬람혁명최고 위원회'(SCIRI)와 他시아파 조직들과 연대, 유나이티드 이라크연맹(UIA) 결성
- (목 표) 공산주의, 아랍 사회주의, 바트黨과 같은 무신론 세력 등 대상 대항
- (활동내용) △ 창설~'60년대 : 이슬람 가치회복 및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 운동 전개
 △ '70년대 : 자국 內 對정부 무장투쟁 활동에 집중
 △ '79년 이란이슬람혁명 전후 : 이란이슬람정권을 지지하며 상호 공조
 △ '80년대 : 특히, 이란-이라크戰 당시('80~'88년) 이란이슬람정권의 지원을 받으며 이란의 對이라크戰 측면 지원